



우리 이제 꽃길만 걷자

- 주거급여제도 '수선가구 지원사례' 편 -



서울특별시

LH



“전 정말 괜찮은데,
할머니는 자꾸
미안하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녀딸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겨울에도 찬물에 씻어야 하고
비만 오면 어김없이 물이 새는 집.
7살에게는 너무 힘든 환경이었으니까요.





국토교통부

LH

“다른건 다 참을수
있는데 화장실 가는게
너무 무서워요”

쥐가 지나다니고, 무너질 것만 같은
오래된 화장실이 무섭고 불편해서
참다가 가곤 했습니다.





이랬던, 할머니네 집이
깨끗한 외관은 물론, 따뜻한 난방까지!
무슨일이 일어난걸까요?



“아저씨들이 와서
페인트도 예쁘게 칠하고,
화장실도 고치고, 따뜻한 물도
나오게 해주셨어요”



개인부담 없이도 낡은 집을 수리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할머니가
주거급여를 통해 주택개보수를 신청했습니다.





자가가구의 노후도를 평가해
개보수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제도

소득, 주택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개보수 대상자 선정



국토교통부

LH



이제, 할머니는 아늑한 집에서
손녀를 키울 수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국토교통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전월세를 지원하고,
낯은집은 고쳐드립니다**

주거급여콜센터 : **1600-0777**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